

광주 서구, 5·18 당일 마을버스 760번 무료 운행



오는 18일 5·18 당일 마을버스 760번 무료 운행 포스터 사진

/광주 서구청 제공

민주·인권·평화 가치 공유...주민 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양동시장, 5·18 사적지 등 경유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오는 18일 하루 동안 마을버스 760번을 무료로 운행한다.

이번 무료 운행은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민주·인권·평화의 오월정신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마을버스 760번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운천저수지, 서구문화센터, 양동시장, 지하철역 등 서구 주요 생활권과 관내 일부 5·18 사적지를 경유해 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오월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기념일 당일 760번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누구나 무료로 탑승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태그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서구는 기념일 당일 광주 지역 대중교통 이용

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을 위해 차량과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무료 운행은 1980년 5월 광주가 겪었던 아픔과 용기를 오늘의 세대와 함께 나누는 뜻깊은 계기"라며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오월정신을 더욱 가까이 체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오는 21일과 27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5·18 인권현장투어'를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5·18 자유공원과 옛 전남도청, 농성광장 격전지, 들불야학 옛터 등을 방문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길 예정이다.

서구는 이번 무료 운행이 단순한 교통 지원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

에서 5·18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760번 노선은 주민 이용률이 높은 생활밀착형 노선인 만큼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오월 공동체 정신 확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기념일을 맞아 지역사회 전반에 추모와 연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

주민들이 역사 현장을 직접 찾아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과 해설 프로그램을 강화해 오월 정신의 현재적 의미를 공유할 계획이다. 서구는 앞으로도 5·18 정신 계승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기영 기자

광주 남구, 상반기 에너지 시설 안전 점검

오는 29일까지 주유소 등 26곳 대상
주민 안전 직결...“철저한 예방 관리”

광주 남구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에너지 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등 에너지 관련 시설 26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남구는 안전관리 자문단과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9일까지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중점 점검 사항은 시설물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석유제품 정량·품질 검사 및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실수 장치 작동, 벌크로리 차량 주요 안전장치 점검, 용기 보관 장소 위해 요인 방치 여부, 가스·유류 저장시설 안전관리 실태,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명령 또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에너지 시설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며 “안

전사고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여름철 기온 상승과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스 누출·시설 파손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장별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 시설의 경우 작은 부주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와 사고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적극 안내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대응체계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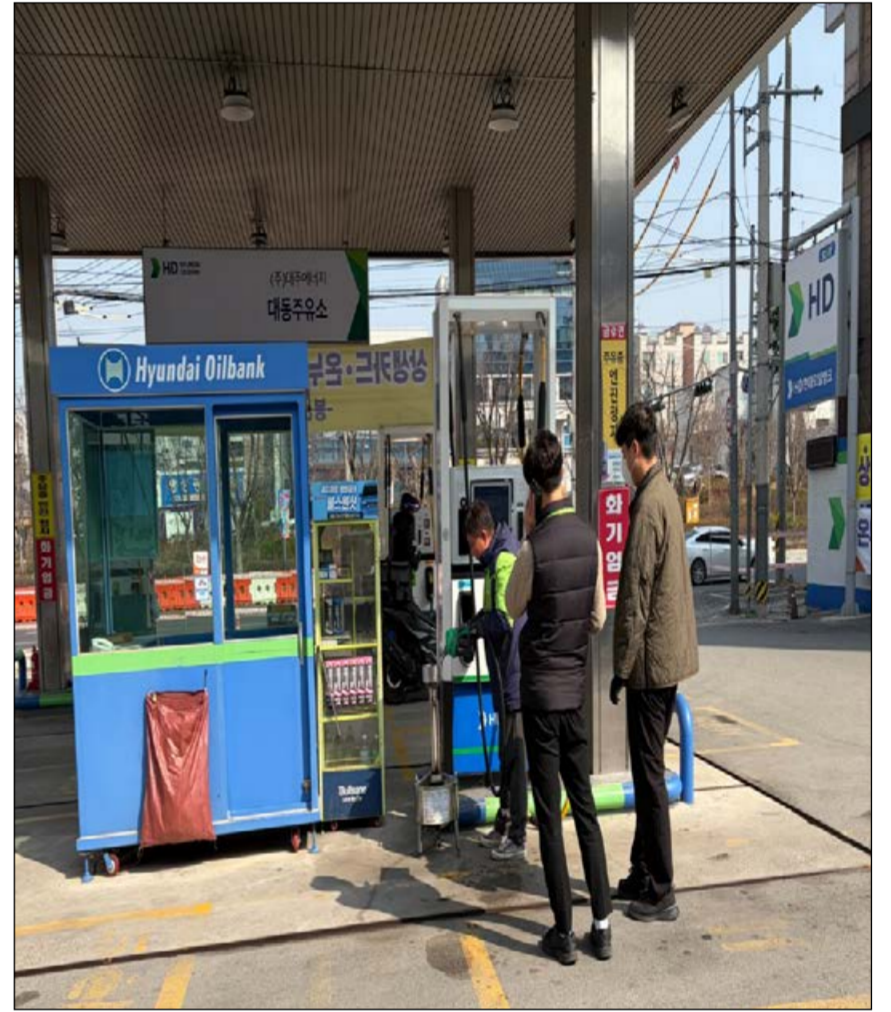
할 방침이다. 아울러 남구는 노후 시설과 취약 설비에 대한 관리 실태도 세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장치 미작동이나 관리 기준 미준수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유도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과 협조해 후속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 생활권과 가까운 주유소와 가스 저장시설 등은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주변 환경과 시설물 관리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남구는 앞으로도 계절별·분야별 안전 취약 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시설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주유소 점검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